



회심의 헤딩슛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박지성(왼쪽)이 16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로퍼트스 로드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헤딩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암벽 여제’ 김자인 세계선수권 준우승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간판 김자인(24·노스페이스·사진)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다. 김자인은 16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 리드에서 양젤라 아이터(오스트리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동메달은 요한나 에른스트(오스트리아)에게 돌아갔다. 김자인은 2009년, 2011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예선과 준결승을 1위로 통과해 우승이 유력했으나 결승에서 아이터에게 정상을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 김자인은 2009년에는 요한나, 2011년에는 아이터에게 1위를 내주는 등 오스트리아 선수들과 계속 경쟁해왔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위해 2014년까지 다시 2년을 더 기다리게 됐다. IFSC는 세계선수권대회를 홀수해에 열다가 올해부터 짝수해에 열기로 했다. 리드(lead)는 15m 정도의 인공암벽을 제한된 시간에 높이 오르는 선수가 이기는 경기다. 암벽을 동료 가운데 가장 먼저 올라 루트를 개척한다는 선등(先登)의 의미를 지닌 산악 스포츠다. ‘난이도’라는 이름으로 전국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내년엔 정식종목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한편 김자인은 전날 벌어진 불더런 준결승에서 2위로 결선에 합류해 정상을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김자인은 리드를 주종목으로 삼지만 불더런에서도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건 적이 있다. /연합뉴스

## 아쉬운 한방

QPR 박지성 풀타임 활약... 첼시와 0-0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의 주장 박지성이 풀타임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첼시와 득점 없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박지성은 15일 밤(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로퍼트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4라운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정규리그 4경기 연속 풀타임이다.

왼쪽 날개로 나선 박지성은 후반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차례 골 기회를 만들어내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산소 탱크’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박지성의 활약에도 QPR은 첼시와 0-0으로 비겨 정규리그 2무2패로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첼시는 3연승 뒤 첫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은 이날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경기에서 결장했다. /연합뉴스

축구 대표팀의 우즈베키스탄 원정 여파로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성용은 사령탑의 호출을 받지 못했고, 팀은 0-2로 저 이번 시즌 정규리그 첫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챔피언십(2부리그) 카디프시티의 김보경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정규리그 홈 경기에 결장, 데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카디프시티는 리즈 유나이티드에 2-1로 신승을 거뒀다. 불탄의 이정용도 왓퍼드와의 홈 경기에서 결장했고, 팀은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 의리의 캡틴

동료 지지 위해 인종차별 논란 존 테리와 악수 거절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박지성(퀸스파크 레인저스)도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존 테리(첼시)와의 악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16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로퍼트스 로드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박지성의 이 같은 행동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톤 퍼디낸드가 테리와 악수하기를 거부했고 주장 박지성도 역시 테리의 손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지성이 테리와의 악수를 거부한 데는 주장으로서 같은 구단의 동료로 지지하고 프리미어리그의 베테랑 스타로서 인종주의를 배척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첼시의 주장인 테리는 인종주의 논란을 일으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테리는 작년 10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퍼디낸드에게 인종차별의 의미가 섞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기소돼 법정에 섰다.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관철에 반발해 자체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FA는 지난 시즌 사건이 불거지자 테리의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직을 박탈하고 그를 두둔한 파비오 카펠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는 등 사안에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 국적이 다르고 인종도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뛰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근 들어 인종주의가 위험 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

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루과이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는 지난 시즌 경기 중에 흑인 선수 파트리스 에브라(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네그로스(흑인)’라고 불렀다가 8경기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안톤 퍼디낸드의 친형인 리오 퍼디낸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트위터에 흑인 수비수 애슐리 콜(첼시)을 ‘초코 아이스(choc ice)’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4만5000파운드(약 8100만원)를 물었다. 초코 아이스는 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검은 초콜릿 옷을 입힌 얼음과자로 백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흑인을 뜻하는 속어다 /연합뉴스

## 원톱 박주영 라리가 데뷔

20분 활약... 팀은 1-2 패배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잡이 박주영(27·셀타 비고)이 최전방 공격수로 스페인 프로

축구 프리메라리가에 데뷔했다. 박주영은 16일 새벽(한국시각)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시즌 프리메라리가 원정경기에서 1-2로 뒤진 후반 26분 최전방 공격수 이아고 아스파스 대신 투입됐다. 아스파스의 자리를 이어받아 최전방에서 원톱으로 한방의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셀타 비고 미드필더진은 전반과 달리 후반에 몸이 무거웠고 박주영은 볼을 건드릴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다. 박주영은 후반 37분 엔리케 데 투카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울린 크로스에 왜도했으나 간발의 차로 골키퍼가 볼을 미리 잡아냈다. 경기 전체를 통틀어 박주영에게는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다. 박주영은 골을 터뜨리거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해 공격 포인트 작성은 다음 경기로 미뤘다. 셀타 비고는 그대로 1-2로 패배했다. 올 시즌 1, 2라운드에서 패배한 뒤 3라운드에서 오사수나를 2-0으로 꺾어 살아나는 듯했으나 이날 석패로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연합뉴스

## ‘엘로더비’ 무승부

K리그 31라운드 광주·전남 1-1 비겨

5번째 ‘엘로더비’가 무승부로 끝났다. 광주 FC가 15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 31라운드 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스피릿 시스템 가동과 시작된 ‘생존전쟁’에서 양팀은 전반과 후반 한 골씩 주고 받으며 승점 1점씩을 가져가는데 만족했다. 전남은 7승9무15패(30점), 광주는 6승10무15패(28점)가 되면서 B그룹 5-6위에 자리했다. 상대전적은 광주가 2승3무로 앞서있다. 전반전은 광주의 몹이었다. 전반 6분 신인 이한샘의 첫 유효슈팅과 함께 광주의 공격이 시작됐다. 전반 34분 골에 어리어 왼쪽에서 이승기가 올린 프리킥을 받은 이한샘이 발리슛을 시도하며 다시 전남의 수비를 흔들었다. 전반 36분 광주가 천금같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전남 정준원이 문전에서 박기동과 경합을 벌이다가 파울을 기록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키커로 나선 광주 박희성은 침착하게 공을 집어넣으면서 1-0을 만들었다. 후반 초반도 광주의 흐름이었다. 후반 13분 김동섭의 슈팅이 수비수 맞고 흘렀고 박기동이 재빨리 공을 잡아 오른발 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이운재의 손에 막히고 말았다. 후반 18분이 운명의 시간이 됐다. 전남의 코너킥에 이은 문전경합과정, 신영준이 찬공이 골대 오른쪽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 최만환 감독은 “수비들이 큰 실수 없이 잘해줬지만 공격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외국인 선수들이 더 집중해서 해줘야 한다. 승강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데 3점을 따지 못해 아쉽다. 지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3점을 향해 가는 경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임 이후 광주와 첫 대결에 나선 전남 하석주 감독에게도 승점 3점이 아쉬운 경기였다. 하 감독은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2무2패의 광주와의 경기라서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 이기고 싶었던 경기인데 승리를 거두지 못해 아쉽다. 홈에서 승리가 계속 없었다. (앞선 0-6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경기 내용에서는 아쉽다”고 언급했다. /광양=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15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엘로더비’에서 전남 골키퍼 이운재(왼쪽)가 광주 수비수 이한샘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